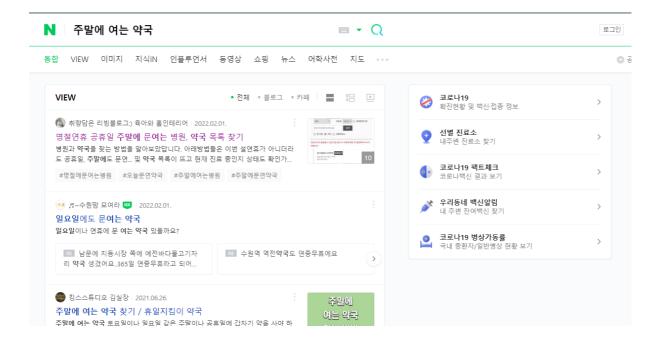


팀 프로젝트 초안

가제: 나만의 119 - 주말, 야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약국 통합 안내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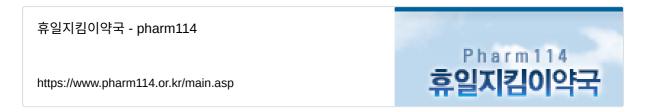
>>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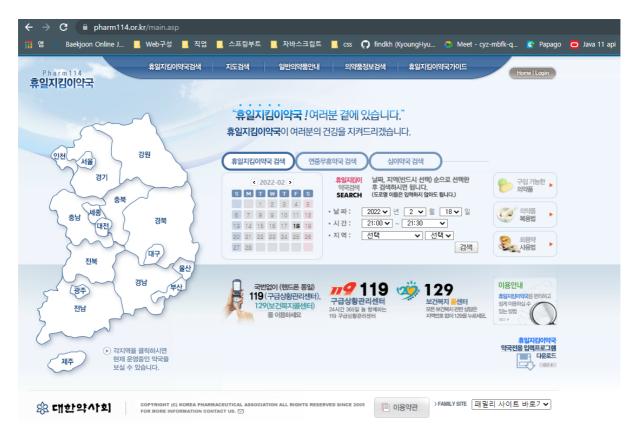
응급상황엔 언제 어디서나 119
이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휴일 또는 늦은 밤, 응급실이 아닌 병원이나 의원은 없을까? 약국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자



우선 주말에 운영하는 약국을 찾아보았다.

블로그 글을 보고 여러 단계를 거친 후에야 약국 정보를 알 수 있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다.





고열, 기침, 오한 등의 증상
코로나19 시국인 요즘 나는 병원으로 바로 가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해야 하는지, 1339에 전화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할까.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1>>> Q&A

1. 어떤 것들을 안내받을 수 있나요?

- · 주요 감염병(메르스, 지키비이러스 등) 상담 및 조치시항 안내
-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 법정감염병 예방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 결핵안심국가 잠복결핵 관련 치료권유 및 상담안내
-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한 민원상담 및 담당자 연결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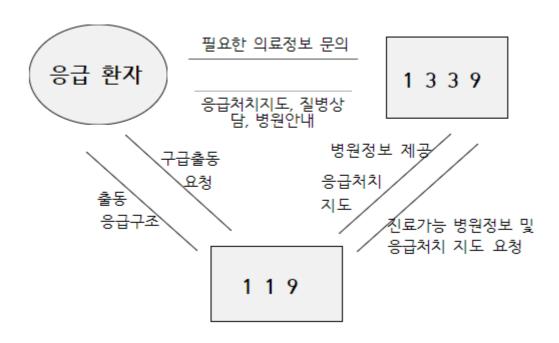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 방안

2011. 12. 9.

관계부처합동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소방방재청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74359



→ 10년전부터 제기 되었던 문제였다.

소방방재청 산하의 119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1339로 의료관련 전화가 이원화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전화가 지연되거나,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cf. 미국의 하와이주에서는 범죄 신고와 의료 상담신고를 한 기관에서 받아서 처리한다) 근데 내가 당장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하지?



사 :증권사 등권

잡코리아 조사, 비대면 의사소통 강화 영향···메신저·문자·메신저 등 선호도 높아





• 해결 방안 및 이점

위와 같은 상황을 겪는 이에게 도움을 주는 홈페이지 <나만의 119> 공휴일 및 야간에 운영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길찾기, 내비게이션 서비스 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

코로나19 시국인 요즘, 119 또는 1339 중에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내 및 설명

간단한 의료정보를 한번에, 하나의 페이지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용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약국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아닌지 간단한 프로토콜로 확인하여 응급실로 내방한다.(절대적인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

간편한 UI로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확인한다.

기본적인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병원 약국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방문시 도움 받을 수 있다.

일반인은 간편한 회원가입

의료인은 자신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통해 닉네임 옆에 의료인임을 나타낼 수 있다.

원한다면 소속 병원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문구를 넣을 수 있게 하여 홍보 기능을 추가하여 의료인들의 많은 참여를 얻어낸다